

# 충성대신보

제 195호  
2022년 7월 4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페이스북	네이버	유튜브	홈페이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 |         |                            |         |                        |
|---------|----------------------------|---------|------------------------|
| 02 학교소식 | 제37대 학교장 방성대 소장 취임         | 08 생도광장 | 다시 만난 세계 -충성대의 문이 열린다! |
| 03 학교소식 | 2030 탄소중립(Net Zero) 캠퍼스선포식 | 10 오피니언 | 사회 저명인사 칼럼             |
| 05 학교소식 | 사관생도들의 뜨거운 열정, 2022 충성문화제  |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
| 06 생도광장 | 생도대 대나무숲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



# 제37대 학교장 방성대 소장 취임

###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변혁을 위해 진력할 것” 밝혀

지난 6월 15일, 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제37대 방성대 학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육군참모총장대장 박정환 주관으로 진행된 취임식은 인접 부대장 및 지역기관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장병, 군무원, 사관생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보직교대 신고 후 명령 낭독, 부대기 이양, 열병, 참모총장 훈시, 취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학교장(소장방성대) 취임사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방성대 소장은 3사 24기보 임관하여 포병학교 교리발전처장, 1군단 화력참모, 6포병여단장, 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 등 야전부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 제37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방성대 소장(우)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좌)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방성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임한 고창준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존중의 업무문화 조성, 학군 교류협력 확대 등 학교의 외연 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으로 부임하였다. 대위 박광선

## 강한 기량과 결의를 담아 육군군가합창대회, 우수상 수상

### 유튜브로 장병·국민 직접 평가



▲ 군가합창대회 지도 간부(소령 경일규)와 대표 생도(57기 김대웅)의 기념사진

지난 6월 15일 육군본부 공보정훈실 주관으로 실시한 제9회 육군군가합창대회 시상식에서 학교 생도대가 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육군은 군가를 통해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가창 붐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합창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

난 3월부터 5월까지 각급 부대와 대학 예선을 펼친 뒤 지난 14일 군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영상 심사를 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참가 대상을 사관생도,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학과 학생까지 확대했다. 본선 심사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군가 영상을 게시해 장병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육군3사관학교는 새 군가 ‘육군, 우리 육군’과 ‘전선을 간다’를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57기 4학년 김대웅 생도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군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면서 “생도로서의 자긍심과 군인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들의 군가창경연대회 공연 모습

##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 최우수상 수상

### 위국헌신의 리더십을 교류하는 학술교류의 장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2022년 리더십 심포지엄'에서 생도 2개 팀(9명)이 최우수로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은 'MZ세대와 공감하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주제로 각 군 사관생도와 일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본선에 오른 20개의 팀 중 7개 팀이 예선을 통과했고, 다층적 시대의 리더십(1분과)과 UCC 부문에서 생도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다층적 시대의 리더십(1분과) 부문 최우수상 유호진, 고민정, 신수민, 홍성엽 생도

다층적 시대의 리더십(1분과)에 참여한 58기 4학년 유호진(군사사), 고민정(화학환경), 신수민(경제경영), 홍성엽(경제경영) 생도들은 “세대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핵심요소를 연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육군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UCC 부문에 참여한 58기 4학년 윤건(정치외교), 신동현(법정), 신수빈(영어), 김원영(국방시스템), 소재욱(건설) 생도들은

“바쁜 일상 중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값진 경험을 얻었고,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UCC 부문 최우수상 윤건, 신동현, 신수빈, 김원영, 소재욱 생도

# 2030 탄소중립(Net Zero) 캠퍼스 선포식

### 환경의 날, 사관학교 최초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선포

### 정부 2030 탄소중립 · 미래국방혁신 전략에 발맞춰 그린(Green) 캠퍼스 구현

학교는 지난 6월 3일,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사관학교 최초로 온실가스과 이산화탄소 저감 설비를 갖춘 그린(Green)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30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을 진행했다. 세계적인 환경정책과 정부의 ‘그린뉴딜’, ‘더 선진화된 군’ 정책의 흐름 속에 ‘지속 가능한 국방력 건설’이라는 모토로 생도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된 이번 행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린(Green) 캠퍼스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행사 진행은 교내 철기장군실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개식사, 내빈소개, 사회저명인사 축하 영상시청, 축사,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왔고, 경북 행정부지사, 영천 부시장, 대구대 총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22년까지 환경정책 연구 및 학술세미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붐(Boom)을 조성하고, 군 내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는 25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학교 신축공사와 연계해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물 옥상녹화,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에코 존(Eco Zone)’을 확대하고, 태양광과 전기충전소를 확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는 30년까지 차량 및 장비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 생도 임관 시 환경교육사 3급(국가공인) 자격 취득, 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등 탄소중립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산소 나눔 행사’ 기념촬영

선포식 이후에 진행된 ‘산소(O2) 나눔 행사’는 참석자가 어린 모종(산소 상징)을 학교에 기부하는 행사로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산소를 늘리는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의 의미를 더하는 행사였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군의 ‘더 선진화된 군’ 시책에

도 부합해 미래지향적인 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은 생도들이 주체가 되어 사관학교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점, 지역과 상생하는 군부대의 롤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을 기념하는 생도들의 ‘2030 탄소중립 KAAY 글자를 나타내는 퍼포먼스’ \*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행사에 대표 생도로 참여한 노건하 생도(58기, 4학년)는 “우리의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위중함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학교와 군 내부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환경연구센터장(중령 허지용은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한 온도상승의 한계점을 1.5℃로 평가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화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위 박광선



▲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에 참여한 주요직위자 및 내빈들과 생도들의 기념촬영

## 호국보훈의 달,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 추모



▲ 추념식을 주관한 학교장(고창준 소장)

지난 6월 6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교내 중훈탑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 사관생도 대표(5부회), 대구·경북지역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다.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된 행사는 조국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치신 호국용사와 순직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영천 호국원으로 이동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건하 생도(4학년, 58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 대표들의 헌화와 묵념



## 사관생도 및 교직원 대상 드론 교육 지원

###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조종능력 구비

지난 5월 13일, 학교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조종능력 구비를 위해 영천 드론자격시험교육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사관생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드론 전력화 계획과 연계하여 드론 조종자 양성 시책에 발맞추어 생도들의 드론 운용능력 구비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문기관인 영천 드론자격시험교육센터에서 맞춤형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드론 자격증은 드론 종류마다 정해진 이

론, 모의 비행, 실기비행 기본 교육 시간을 이수한 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취득한다.

한편, 올해 실시하는 드론 교육은 희망자에 한해 사관생도(연중 7기, 136명), 교직원(연중 2기, 32명)을 모집하였으며, 5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2023년부터는 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는 학교 내 드론교육센터를 구축하여 3·4학년 전 생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드론 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 강사의 지도 아래 드론 교육을 받고 있는 생도들



## 생도여단 4중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부활동



▲ 4중대 4소대 기념사진

지난 6월, 생도여단 4중대 4소대는 소대장 생도(58기 김대원)를 중심으로 24명 전원이 기부활동에 동참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생도들은 자유로운 모금을 통해

총 33만 원의 금액을 모금한 뒤, 충성마트에서 생활필수품과 과류를 구매하여 영천 희망원에 있는 4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다.

소대장 생도인 58기 김대원 생도는 "사관생도로서 앞으로 학교에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한마디를 남겼다. 한편, 생도대에서는 생도들의 올바른 인성 내면화를 위한 'HAM(Humanity Cultivation Activating Movement) 프로그램

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생활 속의 내면화 교육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 2022 석좌·특임교수 위촉식/생도대상 초빙교육



▲ 예대장황인 권(3사 20기)



▲ 예 중장이 진 성(3사 22기)



▲ 예 소장서 정 열(3사 20기)

주무관 길진규

## 충성대(忠誠臺)의 미래를 심는 행사



▲ 사관생도 주요직위자들의 기념사진

학교는 지난 6월 10일, 전 구성원이 함께 꿈을 설계하고 다짐하는 '충성대(忠誠臺)의 미래를 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별 꿈과 염원을 타임캡슐에 밀봉한 뒤, 상징탑 부근에 심어진 황금회화나무 곁에 함께 매설하였다.

주무관 길진규

## 5, 6월 학교 간부 전·출입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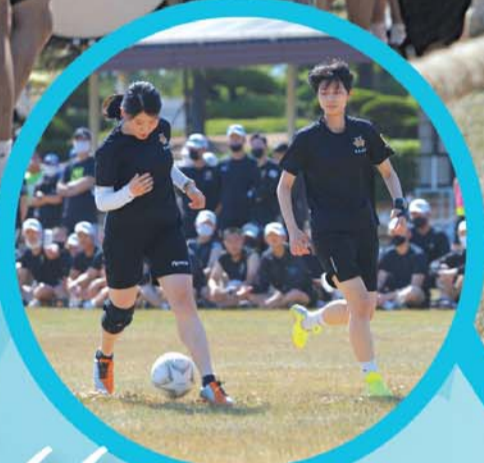
###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행정부 계획운영처 작전장교 소령 조현술
- 군사훈련처 화생방 전투기술학교관 대위 박광국
- 생도대 2대대 훈육장교 대위 안지현
- 교육지원대대 2중대장 대위 윤인성
- 생도대 체육학처 체육학교수 대위 권영훈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술학교관 대위 박해중
- 교수부 공학처 전자공학교수 소위 박경수
- 교수부 사회학처 법정학교수 소위 장우석
- 근무지원단장 대령(진) 정성환
- 생도대 훈육장교 대위 나영배
- 근무지원단 정보작전장교 대위 유성일
- 생도대 4훈육장교 대위 이민호
- 교수부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대위 박영진
- 생도대 교육장교 대위(진) 신승민
- 생도대 인사행정장교 대위 권준엽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소령 강소영
- 학술정보원 CBT개발담당 9급 김규호
- 근무지원단 의무대대 의무보급담당 9급 주요한

###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교수 소령 이수영 → 연합사
- 생도대 1훈육장교 소령(진)이광운 → 특전사
- 교수부 이학처 컴퓨터과학교수 대위 임준호 → 국방부
- 생도여단 2대대 훈육장교 소령(진) 강진선 → 7군단
- 생도대 운영기획처 인사행정장교 대위 이양우 → 사이버사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대위 강민지 → 특전사
- 근무지원단영선대 운영장교 중위 조현명 → 3군단
- 근무지원단 의무대대 의무보급담당 7급 이지은 → 1군수지원사령부





# “사관생도들의 뜨거운 열정, 2022 충성문화제”

지난 5월 26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지극적(자발적, 긍정적, 적극적인) 생도문화를 조성하고 생도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2022 충성문화제가 성황리에 끝이났다.

사관생도들부터 훈육관까지 모두가 함께한 충성문화제는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볼거리가 다채로웠던 하루였다. 우리는 충성문화제 이전부터 줄다리기, 축구, 발야구 등 각 종목의 예선전을 진행했는데, 중대 간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라 예선전 하나하나에 각 중대의 희비가 갈렸다.

26일 당일에는 각 종목의 결승전이 진행됐다. 가장 손에 꼽는 순간은 단연 응원전이였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각 중대를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선수로 뛰는 생도들은 함성에 힘입어 더욱더 치열한 경기를 치렀다. 누군가는 달콤한 승리를 맛보았으며, 누군가는 쓰디쓴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의 순간은 중대 대항 이어달리기였다. 충성연병장 중앙에 전 생도들이 큰 원을 만들어 트랙 모양을 만들었고, 원 안에서는 힘차게 흔들리는 중대기와 북소리, 응원 소리, 원 밖에서는 알록달록한 형광 조끼를 입은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달리며 옆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순위 다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장관을 연출했다.

대회 결과는 발야구(1중대), 축구(6중대), 줄다리기(7중대), 계주(4중대), 중대 응원전 우수(2중대)로 결과가 나왔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되는 체육대회였으며, 선·후배, 동기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 충성문화제였다.

59기 기자생도 김대영



# 생도대 대 나 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HOT KAAY 통신

지난번, 우리는 가장 뜨거웠던 홍보출장에 대한 KAAY 통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길어져간 홍보출장은 총 5박 6일간이었다. 어쩌면 KAAY 통신 덕분에 생도들의 홍보출장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홍보출장을 다녀와서 들려온 너무 반갑고 행복한 소식. 바로 코로나 9 상황의 엔데믹으로 드디어 2년 만에 생도들의 외출, 외박이 풀린다는 것이다! 외출, 외박의 주말 출타를 위해 필요한 자격은 생각보다 높았지만, 생도들은 출타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자격을 통과하기 위해 오늘도 정진한다.

“금박”은 출타 가능 인원들에 한해서 금요일에 일과가 끝난 후 외박을 출발하는 것이다. 현재 외박은 토요일 아침 08시 출발이기 때문에 집이 먼 생도들은 매우 불편함을 느껴 사실 집에 가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금박”이 풀린다면 집이 먼 생도들도 미리 집으로 가서 자고 외박을 즐길 수 있으니 금박은 생도들에게 금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도들의 출타가 풀림과 동시에 우리는 출타에 대한 KAAY 통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생도 : 그거 들었어? 우리 이제 출타가 풀렸잖아, 그런데 작년에 생도대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  
B생도 : 뭐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셨지?  
A생도 : 금박말이야 금박! 금박 풀어주신다고 하셨잖아!! 이제 출타도 풀렸고, 작년에 금박도 풀어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럼 뭐였어?  
B생도 : 와! 그럼 이제 우리 금요일에 일과 끝나고 출타를 나갈 수 있는 거야? 금박이라니...  
A생도 :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  
다음 날.  
B생도 : 애들아, 그거 들었어? 우리 금박 풀린대! 작년에 생도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금박 풀어준다고 하던데?

\* 생도들이 이야기한 생도대장의 의견은 사실과 무관한 뜬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도들은 출타가 풀렸다는 행복도 잠시 더 큰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 계략

처음으로 겪어보는 위기다. 선풍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도들은 녹아내리고 있다. 야외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더워도 되나 싶을 상황이라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날씨가 보이면 더 한숨이 나온다. 아직 하계군 사훈련이 시작되지도 않은 날이지만, 마치 한여름이라도 되는 양 치솟은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과제와 일정들이 연이어진다

처음 겪어보는 무더위에 선배 생도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면 늘 알 수 없는 빈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여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훈련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도 무더위에 지친 생도들은 빙수와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풀곤 한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빙수와 음료를 더 팔기 위한 파리베게트와 아이스빌의 계략이 아닐까..?

## 특급열차

니룻가지 하나는 꺾기 쉽지만 여러 개의 가지는 꺾기 힘들다고들 말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한명의 마음은 약하고 무너지기 쉽지만 여러 명의 마음이 모이고 함께한다면 그 어떤 폭풍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훈육관님들과 선배 생도들은 항상 말한다. 동기들과 늘 함께하며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그런 말씀과 가르침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동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씨 착한 생도들이 많다. 그 생도들은 체력측정을 하는 순간마저 동기들을 도와주고자 하고 뒤처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3km 뒀걸음 측정 때가 심하다. 바로 특급열차다. 이것이야말로 생도대 동기들의 전 우애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잘 달리는 동기들은 자신의 기록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동기와 함께 특급을 달성하고자 뒤에서 동기들을 응원하며 같이 호흡을 맞추어 뛰어나간다. 함께 성장하고 특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 특급열차. 나는 오늘도 여기에 올라타서 신세를 지고 있다.

## 홍부진

생도들의 보급자리인 1층용관은 지붕이 한옥 형태로 되어 있다. 처마가 크고 넓은 1층용관은 제비가 집을 짓는데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매년 봄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바로 제비이다. 제비들은 1층용관 처마 밑에 지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새로운 집을 짓는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벽면 재도색을 하여 모든 제비집이 제거되었으나 올해 봄이 되면서 제비들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사회적 인식으로는 제비가 집을 지은 집에는 길조가 든다고 하나 생도들에게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바로 제비의 울음소리가 소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음에 따른 불만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제비집을 강제로 없애거나 제비를 쫓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생도는 많지 않다. 그들도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걸로는 생도들이 차갑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속은 따뜻하고 여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제비들이 동화처럼 은혜를 갚지는 않겠지만, 생도들의 이러한 가치관이 점차 소대장이 되어야 전에서 전우들을 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 참교육

교수님들은 위탁 교육 등 여러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시기에 방대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생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 교수님들의 넓고 깊은 식견에 감탄하기도 한다. 일반학은 생도들에게 중요한 일련의 과정이며, 이를 위해 교수님들은 수업에 생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

하지만 때때로 일반학은 생도들의 숙면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은 이전에 대한 이야기, 수업내용과 관련된 주제 등으로 심층적으로 생도들과 소통하신다. 생도들은 이런 과정에서 교수님들을 단순한 교수가 아닌, 때로는 선배 장교로서의 멘토의 역할이 되어 주신다고 여기기도 하며, 일반 대학의 수업이 아닌 진정한 사관학교의 수업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한다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생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정한 요인이 아닐까?

## 고요 속의 외침

생도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500일이 넘게 지난 58기 생도들. 생도들은 일반학과 군사학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생도 생활을 통해 다양한 습관을 들이며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 다양한 습관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 절전·절수의 생활화 등이 있다. 매우 좋은 습관이지만 습관이 58기 A생도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A생도의 잊지 못할 기억 속, 3학년 시절의 A생도는 평소와 같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선배 생도가 갑자기 불을 끄고 나간 것이었다. 당황한 A생도는 “사람있어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희미해져 가는 선배 생도의 발걸음 소리를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A생도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축축했다. 그렇게 A생도에게 절전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고, 4학년 생도가 된 A생도는 오늘도 화장실을 이용하후 고요속에 외친다  
“아무도 없나~?”

## 충성대의 검은 호랑이, 흑랑(黑朗) 59기!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 59기 기수명칭 공모전에서 최종 투표 결과, 59기의 기수명칭이 ‘흑랑(黑朗)’으로 결정되었다. 흑랑(黑朗)은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서 음을 차용, 동음이의어로 ‘화랑랑’을 써 뛰어난 화랑이라는 뜻을 가지며, ‘밝을 랑’ 지를 써서 어둠속의 밝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을 가진 화랑으로 3사의 혼을 이어가고, 코로나 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를 밝히는 나라의 정예 장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검은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겨왔다. 특히, 리더십, 열정, 도전정신을 가진 강인하고 용맹한 59기에게 맞는

이름을 우리가 직접 투표로 선택한 만큼 기수명칭에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흑랑(黑朗) 59기 파이팅! 59기 기자생도 정 부민

### 육군3사관학교 최근 10개 기수명칭과의미

구분	명칭	의미
49기	흑룡(黑龍)	흑룡의 해, 2012년의 의미를 부여함
50기	비호(飛虎)	웅맹스러움을 의미
51기	청마(靑馬)	푸른 말(역동성과 성공 강인함을 상징)
52기	청랑(靑琅)	푸른 늑대(투명함, 깨끗함, 너그러움 마음으로 임무수행하자)
53기	천공(天穹)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가른다.
54기	청예(靑譽)	청렴을 지킨 명예
55기	백호(百虎)	백년을 달리는 호랑이(창설 50주년을 기념, 도약할 100주년에 대한 강한 의지)
56기	천랑(天狼)	하늘의 늑대(하늘의 아들)
57기	백린(白麟)	육군뿐만 아니라, 군을 대표하는 기린으로 성장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미
58기	화운(花運)	화랑의 혈통
59기	흑랑(黑朗)	검은 호랑이의 해,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을 가진 화랑

# 하계군사훈련을 앞둔 59기의 마음가짐



59기기자생도 이승엽

설레었던 홍보출장이라는 달콤한 꿈이 끝났다. 이제 1학기의 마지막인 기말고사가 끝나고 59기들은 첫 군사학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 도착했다. 59기 생도들이 구성하게 된 1대대 지휘근무생도 선발공고를 필두로, 59기 사관생도들은 각자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동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다양한 직책들에 지원하였고, 모든 하계군사훈련 중대 구성이 완료되었다.



하계군사훈련 때는 59기만이 1총용관을 사용하게 된다. 선배 생도들의 품에서 벗어나 59기가 주도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하훈 중대에서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평생도들은 '내가 어떠한 임무를 맡아야 동기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다.

'하계군사훈련 학기에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59기 사관생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본다. 물론, 초반에는 힘들 수 있다.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군사학 공부로 인한 정신적 피로 때문에 쉽게 예민해지고 지치는 59기들이 많을 것이다. '처음 배우는 군사학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동기들과 다투면 어찌지?',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59기 모두가 함께 걸어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계군사훈련이 된다면 모두가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59기 사관생도들을 위해 먼저 하계군사훈련을 해본 58기 선배 생도들의 꿀팁을 조사해보았다.

## 59기 사관생도들의 첫 하계군사훈련을 위한 58기 선배 생도들의 꿀팁!

- 59기: 하계군사훈련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58기: 두발정리, 외적 군기 확립 필수 준비!!!(실제로 목소리 상태 등 군기를 확실하게 강조함)
- 59기: 잘 안맞는 동기와 지내야 할 때는 어떡하나요?  
58기: 다음을 인정하고 배려심으로 서로를 도와가며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태되는 것은 그 인원이랍니다 ㅠㅠ
- 59기: 하계군사훈련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팁이 있나요?  
58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자는 것이 최고! 주말에도 여가활동보다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컨디션 관리에 더 좋아요^^
- 59기: 훈련 간참고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58기: 다치지 않고 매사에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배우려는 모습 보여주세요 ~ 다치면 이도저도 아니니 건강관리는 필수.
- 59기: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58기: 평균적으로 5~6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다음날 가는 교장이 멀다면 중대원 모두 자는 시간이 줄어들..)
- 59기: 날씨가 더운데, 탈진에 안걸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8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분이 그대로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것은 금지! 물 한 모금을 살짝 머금고 빨거나,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
- 59기: 필기시험 비중이 좀 큰데 난이도는 어떤지요?  
58기: 필기에서는 누가 더 많이 외우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생소한 군사용어를 미리 공부해놓는다면 훨씬 편해요.

# 다시 만난 세계 - 충성대의 문이 열린다!

58기 국장생도 김수현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생도대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듯 외출, 외박에 대한 매일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떠밀려오고 있었다. 쌓여가던 KAA Y 통신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렇게 홍보출장 복귀 후 가지지 않은 사회에 대한 갈증은 순순히 해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에게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다. 바로 외출, 외박에 대한 조건 충족이다. 성적, 훈육평가, 상·벌점 등 여러 가지 조건 중 체력 특급이라는 조건은 생도들의 가슴을 제일 답답하게 만든다. 하루에 몇 초, 몇 개로 갈리는 운명의 장난인 셈이다. 생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자.

**A 생도** 아, 이거 평소 뛰던 것과 다르다. 측정이라는 긴장감과 앞질러가는 동기들 속에 괜히 움츠러든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더이상 심킬 침조차 없다. 그래도 뛰어야지 어떡해.. 마음속으로 주문을 건다. 어차피 끝날 일이고 결과만 남는다. 나가야 못 나가야 몇 분에 달려있다. 이를 악물고 달린다. 양다리가 저려온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속도만 유지하자.

그렇게 머릿속 많은 독백을 되뇌이며 무거운 다리를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렇게 달려 첫 특급을 받게 되었다. 외출·외박 버프인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페이스 좋다며 옆에서 소리쳐주던 일명 페이스메이커 동기들에게 짝한 감사함을 느꼈다.

뛰고 나면 며칠간은 콧물과 기침으로 고생한다. 그래도 좋다. 달콤한 외박이 끝나고 복귀하는 중에도 5일 후면 또 나간다는 생각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말 그대로 생도대를 출퇴근하는 기분이다. 하지만 주말에 쉬지 않아 다음 일주일이 피곤한 것은 온전한 내 몫이며, 전처럼 풍요롭지 못한 주머니 사정도 내 몫이다. 그래도 외출, 외박이라는 자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생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듯하다. 며칠 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밤에 트랙에서 생도들 뛰는 거 보니까 회전초밥 같더라"

**B 생도** 체력 특급은 생도들에게 기초 체력 기준이자 외출·외박의 조건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과 시험공부로 인해 운동엔 소홀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개인적으로 3개 종목을 측정해가며 운동했고,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거뜬히 특급을 달성했다. 고통의 땀결음은 잔뜩 긴장한 채로 출발선에서 뛰었다. 앞 라인에서 뛰었지만 뛰면 필수룩 동기들이나 앞을 제쳐갔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완주 지점은 500m 채 남지 않았지만 이미 목은 타들어간다. 숨은 가빠진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서는 포기하지는 생각이 가득 찬다.

그때 생활관 동기가 "외박 나가야지"라는 말에 왼발에는 외출 오른발에는 외박을 외치며 숨 가쁘게 달렸다. 결과는 12:28초로 턱걸이로 특급을 달성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초라한 기록이지만 나에게 첫 특급이고 외박을 나갈 수 있는 달콤한 성취였다. 나가자 외출 외박!

**C 생도** 나가기 전에는 그냥 미양 설레고 신났다. 첫 외박이라 그랬나 무리한 일정을 잡고 사회에 빠져 너무 놀기만 했다. 분 단위로 알차게 놓고 많이 안 잘 거라 다짐했는데 의외로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 나가는 건 행복했지만 이동할 때 체력을 많이 빼앗긴다. 무엇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든다.

진정한 휴식이라는 게 사라져서 외박 후 복귀한 다음 주가 너무나도 피곤했다. 외출, 외박이 있기 전에 주로 평일에 열심히 달리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한 주 내내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 다음 주에는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똑같은 것 같다.

**D 생도** 2년 만에 풀린 외출 외박 소식에 흥건히 흘렸던 땀방울과 체육복에 젖은 땀냄새를 맡으며 체력 단련을 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첫 주차에는 토요일 당직이기에 일요일에 외출을 나갔는데 외출은 정말 별로라고 생각한다. 비갈 공기에 기분은 좋는데 너무 피곤했다. 마치 어릴 적 격주로 토요일에 학교 갔다가 학교하는 느낌을 받았다. 흐름이 다 깨져서 다음 한주를 망쳤다.

2주 차에는 외박을 나갔다. 집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다. 사람은 참 감사하다. 자유를 주고 편해지면 더 큰 자유와 편함을 요구한다고. 이제 막 외출, 외박이 풀렸는데 금박(금요일에 출발하는 외박)을 원하고 있다.

**E 생도** 생도들은 외출 및 외박 간 정복을 입고 나간다. 잘제워와 단정한 멋을 더욱 뽐내주는 정복은 생도들의 갑옷과도 같다. 하지만 우리는 정복을 입음과 동시에 개미 한 마리까지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불편하다. 정복을 입으면 생도로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정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영천이나 대구에 집이 있는 동기들과 친분을 쌓아줬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외출, 외박을 위한 체력 특급의 기준은 생도들에게 기본적인 역량이며,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 출타라는 조건이 있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평소처럼 체력을 갈고 닦으며 정예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3사 생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 I

## 부하의 신뢰를 얻는 방법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이야기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국가는 '진나라'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을 한 번 짚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필자는 진시황제가 아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운 '상앙'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중령 민 병 후  
사회학처장

상앙의 본명은 공손양(公孫鞅)이며 위나라의 공족이었다. 또한, 위나라 군주의 서자 출신이라 '위앙'(衛鞅)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훗날 진나라에서 상읍(商邑)을 봉지로 받아 상을 씨로 사용하여 '상앙(商鞅)'이라고 불린다. 상앙은 처음에 위(魏)나라의 재상인 공숙좌의 가신으로 있었으나 당시 위 혜왕이 공숙좌의 천거에도 불구하고 상앙을 등용하지 않았고, 상앙은 당시 진나라 효공이 널리 내건 구인령을 들고 진나라로 가게 된다.

진효공을 만난 상앙은 세 번의 대화 끝에 진효공에게 등용되어 진나라 재상으로 '법가사상'에 기반하여 여러 개혁을 실행하게 된다. 상앙의 여러 개혁은 '신상필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당시에 법령은 갖추어졌으나 백성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직 널리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 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아 말하길,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10금을 주겠다." 그러나 백성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길, "이것을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옮겨 놓자 즉시 그에게 50금을 주어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나서 새 법령을 널리 알렸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시행할 때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사자성이 유래했으며,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후, 상앙의 개혁조치를 통하여 진나라의 국력은 날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훗날 진나라의 왕이 된 태자 '영정'이 중국을 통일하여 '진시황제'가 되었다.

훌륭한 리더십은 부하들의 신뢰를 그 전제로 한다. 지휘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부하들은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부하에 대한 세심한 배려이며, 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부하에 대한 존중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부하의 신뢰를 얻고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II

## 사관생도 그리고 생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도과정은 끊임없는 자기절제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과정이다



대위 심 규 영  
공학처  
건설공학교수

변화가 중요한 시대라고 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변화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국가에서부터 작은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단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하였다. 우리 군 또한 다시 한번 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장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군 역시 아미타이가 4.0을 도입하며 미래 첨단과학기술 군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 외에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으로 조직 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 군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하는 불변의 가치, 본질이 존재한다. 그 본질은 군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위국헌신 군인본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관학교의 변하지 않는 본질, 생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는 정예장교를 육성해야 하고 생도는 생도 생활을 통해 정예장교가 될 초석을 다져 미래 전장과 육군 혁신을 책임질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생도과정은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 종착점이 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생도는 무엇을 하는가? 생도 생활을 통해 국가관·역사관·명예심을 함양하고 규정 준수를 통해 고도의 절제력을 함양한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학과출장 후 오전과 오후에 지력과 체력을 증진하며, 각종 부여된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고 야간까지 쉼 새 없이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갖춰 간다. 하계와 동계군사훈련

에는 집중적으로 군성을 함양한다.

그렇다면 벌써 반이나 지나가 버린 올 한 해의 자신을 돌아보자. 지력 단련을 위해 일반학 수업에 최선을 다했는가? 체력단련에 매진하여 체력검정 합격은 했는가? 자기개발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기합리화하며 넘기지는 않았는가?

사관생도들을 바라보는 기대, 사관생도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상당히 높다. 명예, 고도의 절제력, 규정 준수, 인내 등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모든 단어를 가져다 붙여도 될 만큼 고귀하고, 가히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바로 사관생도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사람은 군인이며, 그 군을 지휘하는 것이 장교이다.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들 이야기한다. 어느 한 순간 정예장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도 생활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통한 끊임없는 단련이 필요하다.

생도 시절 선배 생도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다. '졸업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생도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생도 생활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다. 지금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절대 자신이 부족해서가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임인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생도들이 3사관학교에서 보내는 2년 중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사관생도의 본분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저명인사칼럼 I

# 이제는 초정밀 기상기후 시대다

**인류 최초**의 국제적인 기상협력체제인 IMO(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국제기상기구)는 1873년 유럽에서 결성되었다. 그리고 1950년 UN 출범과 함께 IMO의 역할은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에 인계된다.

WM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0여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상업무 실력은 세계 7위권으로 평가된다.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  
제9대 기상청장

WMO 체제의 구축으로 전 세계는 24시간 기상감시 체제가 되어 각종 재난재해 예방이 가능하고, 비행기와 선박이 지구촌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상감시망에서 생산된 기후자료는 IPCC 등 국제기관과 각국에 제공되어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쓰인다.

20세기 들어 인류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활동량 증가로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계 기상관측망에도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계 기상관측망이 15km x 15km 수준이기에 도심 홍수, 산불, 산사태, 무더위, 전염병 창궐 등의 돌발적인 2차 기상재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지적인 기상관측망도 1.5km x 1.5km 정도다. 그러나 1.5km의 정밀도로도 돌발기상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1년 9월, 미국 뉴욕에 쏟아진 500년 만의 폭우로 지하철에서만 5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유형의 도심 홍수는 2020년 9월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나타나 지하차도 침수로 10여 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자연 발화에 의한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주거지로 확대되는 바람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산불은 호주가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터키, 러시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를 비롯한 산간지방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서 민가를 덮치고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사태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을 훼손하여 택지를 만들고 도

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절개지가 생기는데, 이것이 집중호우를 못 견디고 결국 흩터미가 주거지와 농경지를 덮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악의 무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거나, 습한 날씨로 곰팡이가 돌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의 오랜 지속 원인도 기상조건과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고 추정된다.

현재 다국적 기업 중에 전 세계에 걸쳐 500m x 500m 정밀도의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방송국도 운영하고 기업경영 컨설팅도 하는 중이다. 최근 한국의 한 기업은 세계 기상관측망을 10m x 10m 단위로 쪼개어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기존 국지예보 관측망보다 150배 이상 더 정밀한 나노웨더(nano-weather) 기술이다. 연구 차원에서는 1m x 1m 단위로도 데이터 적용이 가능하니 놀라운 일이다.

이제 개인들도 나만의 초정밀 기상기후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마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를 받듯이, 초정밀 기상기후 웨비게이션(weavigation) 서비스가 개인을 2차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날이 올 것이다.

초정밀 기상기후 서비스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욱 폭발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초정밀 기상기후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준다. 또, 디지털 지구라는 별칭을 가진 메타버스 기술은 가상공간에서도 실제와 같은 기상기후 상황을 구현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력을 높여줄 것이다.

저명인사칼럼 II

# 세종처럼, 이순신처럼 책을 읽자

**세종과 이순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참 많다. 여기서 쓰는 줄서 『세종처럼 이순신처럼』에 나오는 세종과 이순신의 독서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노병천  
NGO 꿈알월드 회장  
리더십학박사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과 같다.” 이처럼 독서가 왜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에 독서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없다.

세종과 이순신의 공통점은 참 많다.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둘 다 엄청난 독서광이었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실력을 쌓았고, 책을 통해 인격을 다듬었다. 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책을 통해 나라를 경영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책 읽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지독한 책벌레였다. 세지를 걱정하던 태종이 어느 날 환관을 시켜 충녕의 방에 있는 모든 책을 감추게 했다. 이때 충녕은 미리 알고 『구소수간(歐蘇手簡)』이란 책을 병풍 뒤에 숨겼다. 이 책은 송나라 구양수와 소식이 주고받았던 편지 모음집이다. 충녕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책을 무려 1000번 넘게 읽었다고 한다. 세종의 독서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다독(多讀)이다. 모든 장르의 책을 골고루 많이 읽는 것이다. 둘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에 대해서는 반복속독한다.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읽는 것이다. 세종백독(世宗百讀)이다. 그리고 좋은 문장이 나오면 수십 번이나 필사한다. 셋째,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물어서 해결하는 것이다. 궁금한 것을 해결하게 되면 잘 잊혀지지 않는다. 또한, 질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여러 사람과 함께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세종은 신하들과 토론을 즐겼고, 특히 집현전 학사들과 책에 대한 담

론을 많이 했다. 세종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나라를 훌륭하게 경영했다. 독서 하면 이순신 또한 세종과 못지않다. 『이충무공행록(李忠武公行錄)』이 있다. 여기에 보면 이순신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있다. ‘겨우 한두 잠을 잔 뒤 부하 장수들을 불러들여 날이 썰 때까지 전략을 토론했다. 정신력이 보통사람보다 배나 더 강했다. 때때로 손님과 한밤중까지 술을 마셨지만, 닭이 울면 반드시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앉아 책과 서류를 보았다.’ 밤새 술을 마셨어도 새벽만 되면 반드시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다. 세종이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난중일기』에 보면 그가 직접 읽었다고 기록한 여러 책이 있다. 이 책들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중에 읽은 책들이다. 류성룡이 보내준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난중일기 1592년 3월 5일), 스스로 읽었다고 기록한 『동국사(東國史)』(난중일기 1596년 5월 25일), 별도로 독후감을 남긴 『송사(宋史)』(난중일기 1597년 10월 8일) 등이다. 『임진장초』, 『이충무공행록』에 기록된 여러 흔적에는 이순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끊임없이 사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순신은 이런 꾸준한 책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훌륭한 리더(Leader)는 훌륭한 리더(Reader)이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아무리 IT가 발달하고, 메타버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세상을 뒤덮었다 한들, 종이책은 종이책으로서의 그 고유한 역할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는 개인, 책을 읽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 세종처럼, 이순신처럼 책을 읽자.

# 본단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의 모든 것』 <상>



소령 박동휘  
인문학처 군사사학과장

2022년 2월 24일 05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 '특별 군사작전'이란 표현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화했다. 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한정된다고 했던 푸틴의 말과 달리 러시아는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은 필자가 2022년 5월 20일 출간한 『사이버전의 모든 것』이란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책은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의 기원부터 2008년 조지아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갈등,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평시 사이버전,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책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란 등의 국가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전에 대한 다양한 사례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신간 『사이버전의 모든 것』  
(출간일, 2022.05.20)  
사진: 플래닛미디어 제공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전쟁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필자는 전공 분야인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짧게 답하고자 한다. 전쟁의 원인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이버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 발발 한 달 반 전인 2022년 1월 14일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일어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전쟁의 전조였고, 본격적인 침공 이전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제타격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물리적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치열한 사이버전이 전개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전쟁이 양측과 일부 용병만이 참여하는 전쟁이라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은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이다.

### 분쟁의 기원 1: '루스국 기원 논쟁'과 '페레야슬라프 협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동슬라브족으로서 '루스국'을 뿌리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이번 전쟁의 근원이기도 하다. 루스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로 알려진 동슬라브족이 최초로 키이우를 수도로 세운 국가였다. 그런데 이 루스국을 부르는 것에서조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다른 시각을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키이우 공국'으로 지칭하는 것에 반해 러시아는 '키예프 공국'이라 한다. 루스국을 서로 자신의 언어로 부르며 자신들이 루스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루스국 기원 논쟁'이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키이우가 자신의 영토 내에 있으니 자신들이 키이우 공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키이우 공국과 모스크바 공국이 공존했으며, 모스크바 공국이 슬라브족 국가가 아니고 슬라브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러시아는 자신들이 키예프 공국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유일한 국가로, 키예프 공국이 1240년 몽골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 후 이것이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러시아로 발전했다고 말한다.

몽골의 침략에 대한 두 민족 간의 다른 대처가 두 국가의 운명을 바꿨다. 루스국의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인들은 친(親) 몽골 정책을 채택한 후 몽골의 유화정책 하에서 힘을 길렀다. 몽골이 내부적 문제로 떠나자 이들은 그 간 길러온 힘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며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루스국 서쪽의 우크라이나 민족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 몽골에 대항했다. 이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는 유럽 국가들과 몽골 간 전쟁의 중심에 위치하며, 당시 최강자 몽골에게 전 국토가 유린되었다. 더 큰 문제는 몽골의 침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키이우 공국은 멸망을 넘어 몽골이 물러간 이후에도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온전한 국가를 다시 세우지 못했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 그리고 폴란드가 순서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의 남쪽 크림반도에 거주하던 크림 타타르족은 폴란드 세력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북쪽을 향해 공격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들어왔다.

우크라이인들은 폴란드와 크림 타타르족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를 의미하는 '(자포리자) 코자크 국가'를 건설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자포리자 코자크는 소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스를 거쳐 현재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코자크 국가는 약소국에 불과했고,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폴란드와 크림 타타르족이 손을 맞잡자 국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자포리자 코자크 국가는 생존을 위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모스크바 대공국과 1654년 협약을 맺기로 했다. 이것이 앞서 설명한 '루스국 논쟁'에 이어 양국 간의 시각차를 만든 두 번째 논쟁거리인 '페레야슬라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코자크 국가 입장에서는 모스크바 대공국 치하에 편입되어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자치국가성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일부였고, 이 협약을 통해 오래전 루스국의 멸망으로 잃었던 지역을 모스크바 대공국이 합병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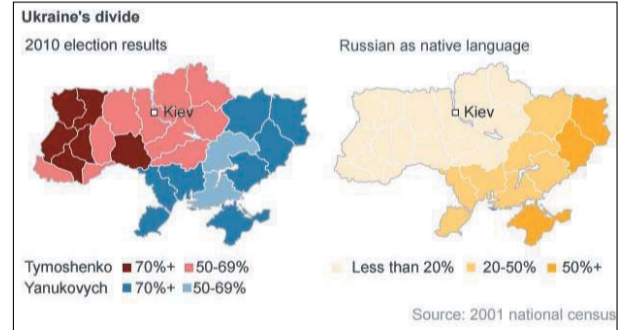


페레야슬라프 협약 체결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54년 소련에서 발행된 우표(출처: Wikimedia Commons)  
<http://kdektioner.net/marki/sss/1761.jpg>

과거를 재건한 것으로 여겼다. 즉, 루스국과 페레야슬라프 협약을 근거로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쟁의 기원 2: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서 분열

한편, 페레야슬라프 협약 이전에 일어난 폴란드-모스크바 전쟁(1605-1618)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동서로 양분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 러시아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이고,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명분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보호의 근원이다. 두 국가는 종전을 협약하면서 폴란드의 지배 하에 있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눠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모스크바 대공국이 지배하기로 했다. 18세기 이후 폴란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모스크바 공국), 그리고 프로이센에게 점령되며 국가가 사라졌다. 이후 폴란드를 점령하여 분할하기로 결정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2대 8의 비율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눠 갖기로 했다. 서쪽 일부가 오스트리아로, 나머지 동쪽은 러시아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2010년 선거결과(왼쪽)와 러시아어 사용 분포로 본 우크라이나의 동-서 분열(출처: BBC)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26387353>

이렇게 국토가 분열되어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내부적으로 동서로 극명하게 갈렸다. 우크라이나의 서쪽을 지배한 오스트리아는 과거 우크라이나가 몽골에 대항할 때 같이 했던 인연이 있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영토 내의 타민족에게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던 오스트리아와 관철은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동쪽을 지배한 러시아는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기는 지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어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즉,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수도 키이우를 통과해 흑해 방향으로 흐르는 드네프르 강을 가운데 두고 우크라이나의 서쪽은 친서방, 동쪽은 친러시아로 갈렸다.

<하>는 다음호에서 계속

2022 트렌드 노트

# 워드 코로나, 뜨는 장소의 조건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워드 코로나' 시대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제 오프라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는 다시 되돌아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워드 코로나로 바뀐 지금, 많은 사람이 다시 일상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찾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외출과 활동 제한을 겪은 우리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더욱 남달라졌다. '공간'은 단순히 3차원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담은 장소가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증가하고 있는 '파인다이닝'을 들여다보자.

높여주는 부가적 요소 또한 중요해지고 있으며, 찾아갔다가 자리가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예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파인다이닝의 높은 가격에는 서비스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평소 맛보기 힘든 귀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항상 대기 중인 종업원은 내 컵의 물이 비어 있는지, 알려지가 있는 식재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파인다이닝 공간에서 적어도 식사를 하는 시간만큼은 지불한 가격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듯,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 담긴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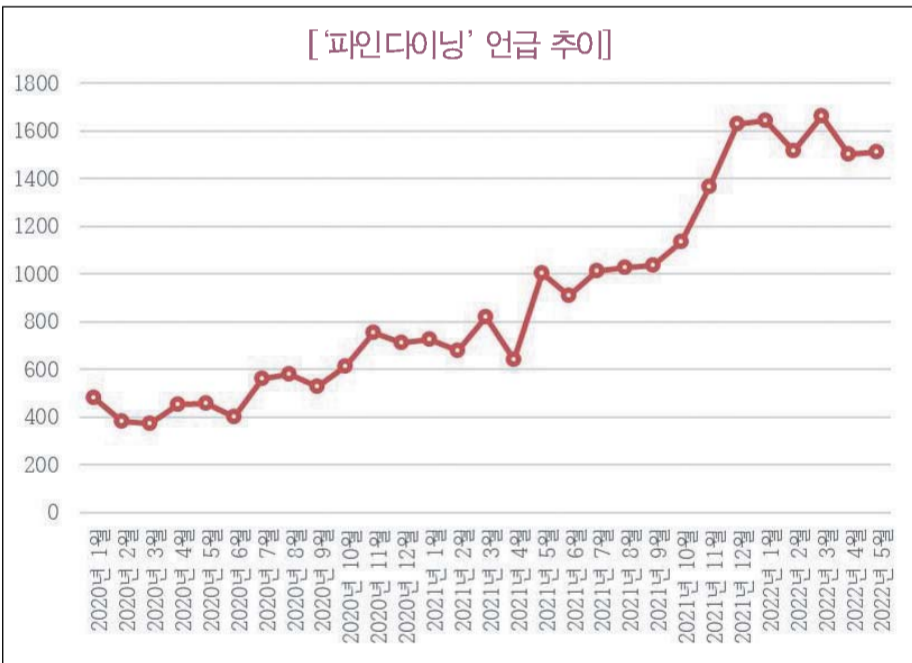
공간은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흔히 '핫플레이스(핫플)'라고 불리는 공간을 기준으로 많이 언급되는 서울의 동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고 있는 핫플레이스는 연남동, 익선동, 서교동 같은 아기자기한 감성의

있으며, 최근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2년 3월은 2020년 3월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개방감과 함께 언급되는 공간의 속성으로 '나무', '햇빛', '창가'가 떠올랐으며 '벽', '천장', '바닥'에 대한 순위는 감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새로 순위권으로 등장한 '루프탑'과 순위권 바깥으로 탈락된 '지하'가 대조를 이루면서 요즘 공간에서 개방감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

쉽게 관찰된다.

파인다이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식사와 서비스, 개방감이 좋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탁 트인 느낌과 여유로움은 공간의 속성을 '누리는' 데에 있다. 이 누림을 위해 기꺼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며, 기꺼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동네를 찾아가기도 한다. 누림을 위한 투자는 자신을 대접하면서도, 자연과 트인 공간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트위터+커뮤니티, 2020.01.01.~2022.05.31.

코로나의 영향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은 2021년 연말을 기점으로 월 1500건 이상의 언급량을 보이고 있다. 단어 자체만으로는 고급 레스토랑을 의미하지만, 사실 파인다이닝은 최근 소비의 핵심주체인 20·30대 사이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코로나 이후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고, 고급스러운 행위와 제품, 시간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파인다이닝의 연관어로 레스토랑, 음식, 식사와 같이 '음식점'으로서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오히려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코스의 메뉴 대신 맛이 가장 중요해지고, 와인과 같이 식사의 만족감을

기존 핫플레이스이며, 뜨는 핫플레이스는 성수동, 연희동, 창신동, 남영동, 부암동과 같이 작지만 동네의 감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성수동은 '넓고 분위가 좋은' 감성으로 대표되며, 최근 관심이 급격히 상승한 창신동의 연관 주요 감성은 '높다'로 나타난다. 특히 창신동의 대표 핫플 카페 '테르트르'를 통해 뜨는 공간의 감성을 이해해보자면, 높은 곳에 있고, 넓은 통창을 통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햇빛과 노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공간의 요소 중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개방감'이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개방감에 대한 관심은 매년 증가 추세에

## ['핫플레이스' 연관 서울 00동 연도별 언급 순위 변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월		
순위	연관어	비중	순위	연관어	비중	순위	연관어	비중	순위	연관어	비중
1	연남동	19.6%	1	성수동	22.1%	1	성수동	26.3%	1	성수동	29.0%
2	익선동	17.7%	2	연남동	17.9%	2	연남동	15.6%	2	연남동	16.0%
3	성수동	16.7%	3	익선동	11.0%	3	익선동	10.6%	3	명동	9.5%
4	망원동	5.3%	4	신사동	6.0%	4	명동	6.1%	4	익선동	8.6%
5	명동	4.8%	5	망원동	5.1%	5	망원동	5.7%	5	망원동	4.9%
6	신사동	4.1%	6	문래동	4.1%	6	신사동	4.7%	6	문래동	4.3%
7	인사동	3.3%	7	인사동	2.8%	7	인사동	2.9%	7	연희동	3.1%
8	문래동	3.3%	8	명동	2.8%	8	연희동	2.7%	8	신사동	3.1%
9	삼청동	2.5%	9	대흥동	2.5%	9	문래동	2.6%	9	인사동	1.6%
10	연희동	2.2%	10	연희동	2.4%	10	대흥동	2.3%	10	삼청동	1.6%
11	대흥동	1.9%	11	삼청동	2.0%	11	삼청동	2.0%	11	신당동	1.6%
12	서교동	1.5%	12	목동	1.6%	12	한남동	1.5%	12	대흥동	1.4%
13	한남동	1.2%	13	신당동	1.5%	13	목동	1.3%	13	한남동	1.1%
14	합정동	1.2%	14	한남동	1.4%	14	신당동	1.1%	14	창신동	0.9%
15	방이동	1.0%	15	금호동	1.4%	15	신천동	1.0%	15	합정동	0.9%
16	학동	0.9%	16	서교동	1.0%	16	금호동	0.9%	16	길동	0.9%
17	역삼동	0.9%	17	성북동	0.9%	17	방이동	0.8%	17	방이동	0.9%
18	후암동	0.9%	18	역삼동	0.9%	18	학동	0.8%	18	남영동	0.7%
19	신당동	0.8%	19	학동	0.9%	19	후암동	0.8%	19	중곡동	0.7%
20	삼성동	0.8%	20	신천동	0.9%	20	서교동	0.8%	20	목동	0.7%
24	목동	0.7%	24	방배동	0.8%	24	삼성동	0.6%	24	부암동	0.5%
25	이태원동	0.7%	25	후암동	0.7%	25	방배동	0.6%	25	서교동	0.5%
26	신천동	0.6%	26	마곡동	0.7%	26	부암동	0.6%	26	장안동	0.5%
31	방배동	0.4%	31	부암동	0.5%	31	창신동	0.4%	31	혜화동	0.4%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트위터+커뮤니티, 2019.01.01.~2022.02.28.

지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벽으로 바깥과 구분되는 공간보다 햇빛이 통하고 바깥이 보이는 창가로 나서고 있다. 나무, 햇빛, 창가로 요약되는 개방감의 조건에 따라, '차박'을 시도하고, 루프탑 카페를 찾고 풀딩도어를 설치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하며, 이것은 핫플레이스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최근 내가 좋아하는 카페, 식당, 풍경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자. 오랜 시간의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생활 반경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의 욕망 속에도 공간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을 지도 모른다.



출처: Youtube 생활변화관측소, "과거로 향하는 사람들? 낡을수록 핫플이 된다! '로컬리티'로 분석한 핫플레이스의 조건", <https://youtu.be/AJXRNqXYQs>

# 주목해야 할 그린 에너지, 수소

## 수소 경제와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이에 비례하여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했다. 많은 과학자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였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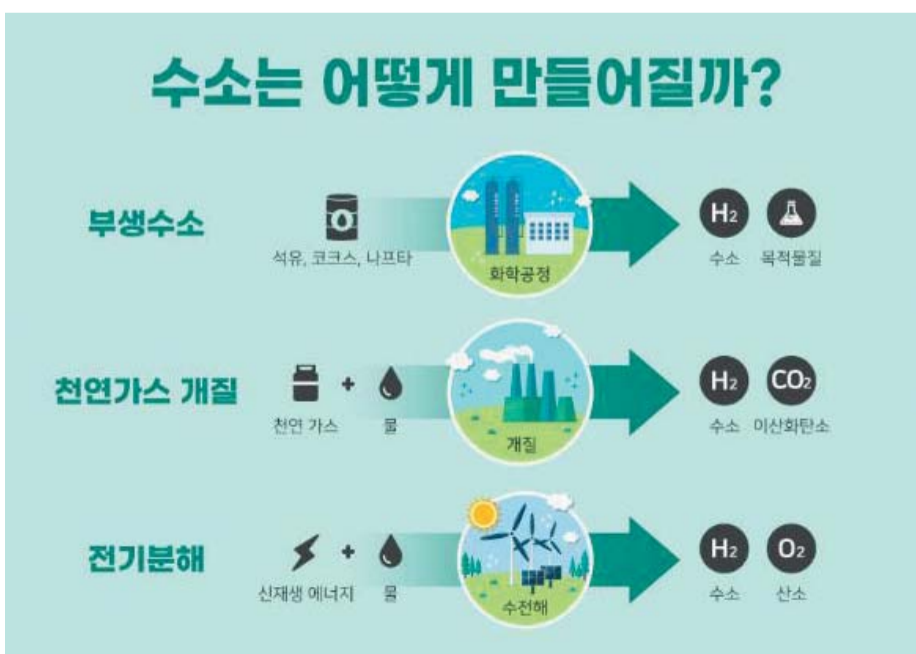
그 결과, 2015년 11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상승을 2100년까지 2°C 이내로 줄이기를 결정했다. 또한, 2015년 유엔은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배출하는 40여 개국에 대해 ‘포스트-2020 기후변화 목표’를 세워두게 되었다.

이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대기 내 탄소의 양을 더는 늘리지 않는 ‘탄소 중립’이 주목받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과 기업의 주도하에 원자력, 태양열, 풍력 등의 기술이 상용화가 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에너지라고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들이 최근 한계점을 보이며, 세계 증시에서 ‘그린 버블’의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태양광 정책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70%가 산지인 국토의 특성상 한계를 보였다. 산사태나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 등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또한, 눈을 돌린 해상풍력은 한국의 평균 풍속이 7m/s로 느리고 일정치 못해 효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풍력 세계 최강국 덴마크에서조차 모자라는 전력을 스웨덴에서 수입해 쓴다고 하니 한계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재생에너지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열린 P4G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의 공통 화두인 ‘탄소 제로’에서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수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1. 왜 수소에너지인가?

수소에너지는 물이 전기에 의해 기본 원소들로 분해되는 원리를 이용해 수소 원소를 강한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소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의 ‘양’ 때문이다. 저탄소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석유생산은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고, 향후 그것의 가격과 공급체계 때문에 경제적, 외교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수소가 주목받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무한대의 양의 수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소는 대량의 저장이 가능하다.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전기분해하여 수소로 대규모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수소의 운송설비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파이프라인은 송전선 사용의 8분의 1의 비용으로 10배의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소는 철강, 시멘트 같은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에서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화학이나 비료 산업에도 재생 가능한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풍부한 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탄소를 통해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 2. 수소 경제 시대, 우리의 미래

수소 경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엔트로피’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이 2002년 ‘수소 혁명(The Hydrogen Economy)’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일찍이 석유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세계 에너지 경제의 미래를 수소에너지에서 찾은 것이다. 수소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산업과 시장’을 뜻한다. 이러한 수소 경제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는 수소의 생산에서 저장, 운송에 이르러 수소의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수소 경제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수소의 수요가 연간 78EJ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18%를 차지하는 양으로, 연간 2.5조의 시장가치와 수천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환경적 가치는 더더욱 크다. 수소 경제에 진입함으로써 탄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2050년에는 배출량이 연간 60억 톤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도 수소 경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 자동차와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2040년까지 수소 자동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발전용 연료전지의 발전 성능을 15GW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2040년까지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수소의 활용에서는 경쟁력을 보이지만 생산과 저장, 운송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국들이 수소의 생산기술 개발과 충전소,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수소 시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생산기술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분야에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투자를 통해 한국이 미래의 핵심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소에너지와 수소 경제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지성(知性)’의 전당 ‘서울대’에서 57기 충성대 호랑이 장교들에게



중령 문장권(3사37기)

前 육군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도서관장  
現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용어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해당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할 젊은 장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중에 일부가 ‘초연결성’, ‘초지능화’라 할 수 있다. 이 말 인즉 지금의 시대는 사물, 인간 그리고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혜와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번영의 초석을 담당할 정예 장교로서 멋지고 가슴 벅찬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도 각각 감당해야 할 직분에 맞는 전투기술과 전문지식을 함양했다. 앞으로 각 임지에서 지휘자 및 참모로 뜻깊은 여정을 시작할 시점에 어떤 리더로 거듭나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은 실마

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한다.

첫째, 지혜와 지식을 융·복합하는 ‘알고리즘’ 리더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유한 집합(finite set)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당 개인과 조직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하는 도구 또는 생각의 틀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용어의 개념을 사람에게 원용해 본다면, 아마도 지혜와 지식의 융·복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적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구 또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 낼 줄 아는 리더가 시대와 조직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적 탐구 자세가 필요하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는 지적 탐구 자세를 견지한다면 ‘알고리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대면할 것이다.

둘째,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스마트(Smart)’ 리더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Smart)’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똑똑한, 영리한’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줄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고 나갈 정예 장교로서 주어진 임무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줄 아는 ‘똑똑하고 영리한’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 리더의 본보기로 과거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창안(創案)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셨던 역사적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본받아 앞으로 맡겨질 각자의 위치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스마트’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셋째,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공유할 줄 아는 ‘감성’이 풍부한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

감성이란 사람의 오감(五感)을 통해 들어온 모든 내용을 지각하여 표상을 마음에 형성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례로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등 오감을 통해 마음에 형성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초급 장교로서 많은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할 줄 아는 ‘감성’이 풍부한 리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가 다음의 말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테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사람을 대할 때 논리의 산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산물로 대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라는 경구(警句)를 여러 번 곱씹고 체득화 하려고 노력한다면 ‘감성’이 풍부한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문무를 겸비한 청년 장교로 임관 이후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도 굵은 뺨방울을 마다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한 3사 57기 충성대 호랑이 장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표합니다. 이제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휘자 및 참모로 첫발을 내딛는 그순간이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하루하루 정진하는 장교로 거듭나길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3사57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옛날 제복... 정말 이랬다고? 육군3사관학교 유튜브 채널 3사TV 에서 보고싶은 콘텐츠를 알려주세요!

\* 설문지 URL : <https://naver.me/5AqvXhmj>  
QR코드를 찍으면 설문지로 이동합니다!

### 3사 총동문회 제16대 총동문회장 박주왕 미래환경 대표 취임

지난 6월 16일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웨딩홀에서 제16대 박주왕 총동문회장의 취임식과 후원의 밤 행사가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 및 각 동기회 임원, 신상대 재향군인회장, 출신별 동문회장,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문회는 지난 4월 취임한 경영인 출신 신상대(3사 6기·예비역 대위) 재향군인회장에 이어 기업을 경영하던 박주왕 신임 회장이 취임함에 따라 경영실적 개선, 조직 활력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과 취임식 행사, 만찬 및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축하 화환은 쌀 화환으로 받아 6.25 참전 유공자와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한편, 이날 제16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는 박주왕 미래환경 대표는 3사 19기로 1982년 소위로 임관한 뒤 1993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3사총동문회**



▲ 박주왕 제16대 총동문회장(가운데 꽃다발) 취임행사 기념 사진

### 3사 15기, 보름회장배 중대 친선 골프대회

3사 15기는 지난 6월 17일 남수원 CC에서 회원간 친목 도모와 소통강화를 위한 보름회장배 중대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5기 이윤재 동기회장 등 40여 명, 총 11개의 팀이 참여했다. 이윤재 동기회장은 "친선 행사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친목, 단결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사총동문회**



▲ 친선골프대회 행사가 끝난후 3사 15기 단체 기념사진

### 故 차성도 중위 추모제 “전우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27사단장 정진팔 소장(육사 48기)과 총동문회 임원진들의 기념사진

살신성인의 표상, 故 차성도 중위의 제52주기 추모제가 지난 6월 9일 제27보병사단 차성도 추모공원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주왕 총동문회장(19기), 이양수 역대 회장(1기)을 비롯한 27사단 장병과 차 중위의 유가족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헌화 및 분향 등 행사 진행 후에는 27사단 측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차성도 중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며, “추모식을 통해 차성도 중위의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故 차성도 중위(1기)는 1970년 1월 17일 육군소위로 임관해 육군 27사단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그해 5월 13일 소대 야간 방어 사격 훈련 중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핀을 뽑다 실수로 놓치지 못함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들을 구한 뒤 순직했다. **3사총동문회**

### 제31대 수도군단장 고창준 중장 취임식

지난 6월 14일, 고창준 중장(3사 26기)이 수도군단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이후 열린 다과회 현장에서 고창준 중장을 위해 지휘봉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창준 신임 군단장은 지난 1989년 육군 3사관학교 26기로 임관 후 7사단 연대장, 6군단 참모장, 37사단장, 육군 3사관학교장을 지내는 등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한 지장으로 평가받는다. **3사총동문회**



▲ 제31대 수도군단장 고창준 중장(3사 26기)과 총동문회 임원진들의 기념사진

##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 K-Military 경연대회

국군장병 여러분의 넘치는 열정과 끼를 보여주세요!

<b>대회일정</b>   2022. 10. 15. ~ 10. 16. *소집기간: 2022. 10. 13. ~ 10. 16.	<b>참가대상</b>   전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b>장 소</b>   계룡대 비상활주로 상설무대	<b>참가신청</b>   참가신청서를 대표자 1명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으로 제출 인터넷: gumdo425@naver.com 인트라넷: n19-20090@mnd.mil (지원서 양식 공문, 각 군 게시판 참조)
<b>접수기간</b>   1차 심사(서류) 2022. 06. 13. ~ 2022. 7. 22. 2차 심사(현장심사) 2022. 8. 18.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b>접수기간</b>   국방부장관상 1팀 (100만원, 상장) 충남도지사상 3팀 (50만원, 상장) 계룡시장상 3팀 (40만원, 상장) 조직위원장상 3팀 (40만원, 상장)
<b>지원부문</b>   7분 내외 프로그램으로 제한없이 지원가능 (노래, 춤, 악기연주, 무술공연, 퍼포먼스 등)	

문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국방부 지원단(042-553-5635)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GYEONGJU WORLD MILITARY CULTURE EXPO 2022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2.5.1~'22.6.28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6억 6천만원 (2022.6.28 기준)

### ■ 학교발전 동창특별기부자('22.5.1~'22.6.28 기부현황)

김의진(육사#46 1050), 김호길(육사#48 263), 두석주(육사#51) 2(202), 황수현(육사#51) 2(12), 이강경(육사#54) 2(6), 이우진(육사#54) 2(74), 조상근(육사#56 2147), 변용성(육사#58 2113), 이규현(육사#58 2107), 이주실(육사#58 292), 김대영(육사#59 2180), 문은석(육사#59 210), 김진찬(육사#61) 2(77), 홍희종(육사#61) 2(109), 홍인태(육사#65 242), 문준호(육사#67) 2(53), 조지웅(육사#68 2(14), 권성진(육사#69 2(40), 정윤혁(육사#78) 6(11), 한덕수(학군#26 2119), 남기웅(학군#29 2(24), 구희곤(학군#32 2(147), 서필석(학군#34 2(24), 임문택(학군#34 2(18), 송경태(학군#37) 2(136), 정우람(학군#46 2(30), 이세훈(학군#48 2(35), 홍현신(학군#48 2(32), 최재호(학사#29 2(136), 이준수(학사#35 2(120), 임도현(학사#54 2(115), 구주현(학사#55 2(38), 임채훈(학사#55 4(102), 박수영(학사#56 2(30), 성혜애(학사#56 2(58), 강진선(학사#57) 2(24), 심정현(학사#58 2(46), 김형태(간부#22 2(66), 윤경주(간부#26 2(26), 강찬영(군종#61) 2(42), 최윤정(간사#38 2(51), 송소연(간사#58 2(32), 이대희(준위) 2(41), 김소현(여군 #46) 2(31), 류재운(군무원) 2(204), 안영주(군무원) 2(54), 이수진(군무원) 2(22), 정사연(군무원) 2(33)

### ■ 졸업·재학생도 부모('22.5.1~'22.6.28 기부현황)

####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20), 김종국(#41 김성준 부) 10(380), 김경숙(#45 배형규 모) 12(176), 조경혜(#45 황정태 모) 10(860), 홍근식(#46 홍대희 부) 4(130), 백인숙(#47 ○○○ 모) 2(19), 성동모(#50 성열환 부) 4(226), 안순봉(#51 박상우 모) 20(1,060), 김현미(#52 오치원 모) 1(58), 이영미(#52 황성규 모) 6(328), 정정화(#52 조강현 모) 2(351), 박일심(#53 정필승 모) 2(143), 조정숙(#53 유영빈 모) 4(144), 서완수(#55 서지찬 부) 4(102), 정원석(#55 정준영 부) 2(128), 송학빈(#56 송용준 부) 2(74), 정희숙(#56 배우희 모) 20(1,28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80), 강혜영(#57 고원석 모) 2(22), 김경남(#57 김민우 모) 1(20), 김근택(#57 김광진 부) 4(46), 김순말(#57 김준모 모) 2(42), 박경석(#57 박찬환 부) 2(54), 양내석(#57 양철민 부) 20(230), 오유미(#57 김주현 모) 4(50), 이동희(#57 박찬환 모) 8(65), 정재현(#57 정유승 부) 4(44), 지미리아(#57 김대현 모) 20(230)

#### ▶ 재학생(4학년/58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김한영, 김도희, 구향본, 양미선, 진경화, 최걸순, 한만근

#### ▶ 재학생(3학년/59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곽춘복, 김민준, 김예령, 박주연, 임승남, 임채석, 장연복, 정신, 정영남, 최인, 홍유경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졸업생/단체 기부현황('22.5.1~'22.6.28기부현황)

#### ▶ 3사 55기 동기회 500만원

- ▶ 1기 김용하 4(172), 남훈조 10(1,419), 이기권 2(556), 임관택 2(90), 최익환 2(92)
- ▶ 3기 장영집 10(270), 김연석 10(596)
- ▶ 5기 김일순 10(415)
- ▶ 8기 박진규 4(100)
- ▶ 9기 권영호 10(470), 김현기 6(1,209), 윤지환 6(177), 이창권 10(30), 최병학 10(1,285)
- ▶ 13기 문성목 20(340)
- ▶ 14기 김길영 2(108), 김종환 1(66), 안호 10(2,040), 이순진 20(900), 이종학 5(125)
- ▶ 15기 김성연 2(535)
- ▶ 16기 심재민 2(19), 원홍규 6(342), 유영집 6(47), 윤영식 10(300), 이영호 2(137), 이종우 2(170), 황병태 2(318)
- ▶ 18기 구연덕 1(139), 금용백 6(600), 이기환 2(35)
- ▶ 19기 김익수 4(203), 이경희 2(182), 이종형 6(283), 이창호 6(606), 임영갑 10(200), 홍성식 2(205)
- ▶ 20기 김은희 1(76), 박관순 4(168), 서정열 4(503)
- ▶ 21기 신철수 4(1,186)
- ▶ 22기 권순태 2(62), 김면수 10(120), 정경호 1(54), 조태환 4(159)
- ▶ 23기 김태일 2(240), 신영찬 2(81), 오승욱 8(284), 정철재 100(226), 최승환 2(17), 허강수 4(299)
- ▶ 24기 곽종만 4(72), 권광락 4(304), 권오봉 2(224), 김도협 2(242), 김성래 6(52), 김지영 12(990), 남용구 2(306), 모경원 2(237),

- 박세철 2(80), 방성대 2(121), 이문휘 2(102), 이성열 5(5), 정정현 2(201)
- ▶ 25기 김남용 2(144), 문봉성 2(162), 이은전 5(63), 장광선 6(508), 장무수 2(59), 전희준 2(315), 조재희 2(133), 홍은표 2(209)
- ▶ 26기 고창준 10(322), 유근환 1(45), 이덕우 2(137), 이완주 4(149), 이태인 4(82), 임우영 2(254), 장웅빈 2(133)
- ▶ 27기 김관수 6(109), 김덕중 2(78), 김성오 4(50), 김용범 4(38), 김지덕 2(32), 김호복 8(297), 석수열 2(55), 우성재 2(17), 원희문 10(295), 이희순 2(249), 정월균 2(54)
- ▶ 28기 권승영 1(30), 권양철 2(118), 김진길 2(90), 김창현 1(173), 박용섭 4(193), 서청수 2(182), 유정일 2(46), 윤석찬 2(151)
- ▶ 29기 김강식 2(255), 김광석 4(22), 김태영 4(50), 박성훈 2(163), 박태용 2(142), 이상일 2(198), 이규구 2(125), 임국기 20(110), 임성호 2(174), 최안석 2(136), 현대석 2(160)
- ▶ 30기 김종권 2(94), 김효성 2(54), 남진오 2(65), 이병길 2(29), 이진 2(159), 임상달 2(129), 주경호 2(123), 홍성범 2(47), 함민호 2(110)
- ▶ 31기 권동호 4(80), 김민식 4(118), 김영태 2(191), 김태희 2(19), 김희업 2(236), 염향수 2(146), 이재준 2(220), 이훈복 2(58), 최대집 2(56), 전경인 2(43)
- ▶ 32기 권관덕 4(332), 김화웅 2(123), 사인우 2(145), 안태환 4(14)
- ▶ 33기 권해욱 2(38), 김상선 4(168), 김성근 4(164), 김현규 4(409), 남석진 2(147), 노일 6(194), 안정일 2(244), 안준영 6(149), 이정표 6(107), 조재복 2(120), 홍종원 1(40)
- ▶ 34기 강훈 2(7), 김가수 2(190), 김운성 2(55), 김홍식 6(465), 이무이 2(414), 임창훈 2(90), 정창근 2(116), 정훈환 2(66), 조수창 2(191), 홍영기 2(35)
- ▶ 35기 김경철 2(19), 김수열 2(79), 박병준 6(338), 박상우 2(95), 박시근 2(193), 송명성 4(80), 이문희 2(159), 이호순 6(40), 임창규 2(117), 장덕기 100(100), 장춘삼 2(154), 전성광 2(48), 정병삼 2(159), 정영석 2(115), 정호준 4(114), 하중수 2(35), 한종훈 4(387)
- ▶ 36기 김도희 4(74), 김동혁 2(99), 김명규 1(59), 김현 2(138), 안경우 6(298), 양현승 2(215), 이광희 2(160), 이규호 2(125), 임종수 2(80), 장세호 2(211), 정우철 2(146), 조동권 2(227), 진연수 2(171)
- ▶ 37기 강성봉 2(177), 김양홍 6(267), 김충기 4(167), 김홍년 2(242), 노진철 2(156), 문장권 2(30), 송석봉 4(171), 송용섭 4(305), 옥원호 2(142), 이관모 2(148), 이용구 4(80), 이원형 4(295), 이희석 2(127), 임원철 2(163), 전성진 2(137), 정우진 2(80), 정태욱 4(132), 정희철 2(136), 최정호 2(48), 최하용 3(84), 함성규 2(113)
- ▶ 38기 김대현 2(33), 모을하 2(236), 문정민 2(126), 문현성 2(239),

- 서성걸 2(83), 신상운 2(137), 이경식 2(187), 이정용 4(248), 위재익 4(93), 정한옥 4(218), 함기훈 2(94)
- ▶ 39기 권웅 2(54), 김의진 2(135), 김인경 2(93), 김지훈 4(107), 박철균 2(129), 송진근 2(128), 송창현 4(131), 심용운 2(98), 양운차 2(76), 이대화 2(221), 이웅렬 2(117), 이준석 2(85), 장동준 4(81), 정대겸 2(36), 최현철 2(282)
- ▶ 40기 구자운 4(190), 김백린 2(208), 김영우 6(274), 김우형 4(26), 김종욱 2(49), 김형수 2(185), 남태근 2(44), 박상규 2(62), 박진하 2(101), 송석준 2(146), 유형선 2(92), 이호연 10(738), 이훈석 2(68), 최창국 2(104), 하성남 6(9)
- ▶ 41기 권영철 2(75), 김석진 10(288), 박한지 2(195), 방현욱 2(85), 손영민 2(169), 손종득 2(103), 임성은 4(137), 전종상 10(247), 정기채 2(195), 최민구 2(131), 최인혁 2(79), 최지능 2(218)
- ▶ 42기 강구한 2(33), 강재석 2(113), 강정희 2(162), 공광석 2(68), 김동우 2(136), 김동진 2(105), 김용민 2(72), 박호찬 2(162), 박용준 6(58), 손병현 2(180), 송태권 4(18), 윤희철 2(156), 이광호 2(79), 이기욱 2(103), 이승은 2(162), 이용학 1(164), 정민기 2(155)
- ▶ 43기 강민식 4(258), 김용태 2(101), 김인중 2(246), 노창래 2(53), 박희영 2(69), 배동직 6(166), 백두산 4(254), 염태섭 2(54), 이도훈 2(137), 이상민 1(152), 이홍희 4(241), 이준맹 2(90), 이호선 2(92), 최진호 4(103)
- ▶ 44기 김대는 2(113), 김승돈 4(14), 김인찬 2(54), 권용혁 4(44), 서동준 2(148), 염태천 2(101), 윤병희 2(180), 이민재 2(140), 이영민 2(149), 이희성 4(161), 최재균 2(80), 황재혁 2(39)
- ▶ 45기 권기호 2(143), 김동호 2(151), 김성수 4(125), 박영일 2(146), 서석관 2(154), 신유철 2(136), 이인근 2(91), 이진희 4(146), 정재현 2(147), 정진우 2(148), 채희용 2(126), 최홍수 2(149), 황승세 2(147)
- ▶ 46기 강승웅 4(274), 김강연 2(6), 김대영 2(49), 김명철 2(135), 김정렬 2(135), 김경호 2(252), 김진용 2(169), 김현석 2(17), 김희준 2(6), 백인정 2(135), 송원상 4(220), 오기리 2(133), 이상운 2(135), 이수원 2(138), 이진철 2(126), 이호빈 2(62), 정종택 6(407), 조광연 2(73), 조수빈 2(97), 차승우 2(97), 표상열 2(135), 한영인 2(135), 홍한표 2(126), 황순창 2(135)

▶ 47~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58기 황영호 3(45)

▶ 59기 이용훈 10(15)

## 졸업기수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22.6.28 기준) ※ 참여율 (참여인원/입금인원) / 단위: 만원

기수	기부총액	참여율	기수	기부총액	참여율	기수	기부총액	참여율	기수	기부총액	참여율
1	13,984	100	16	6,883	11	31	3,308	5.6	46	36,442	100
2	7,436	28	17	4,685	9.1	32	3,115	4.5	47	33,943	100
3	19,807	8.8	18	8,057	10.4	33	7,213	15.2	48	31,927	100
4	7,013	16.6	19	7,719	5.8	34	5,980	15.7	49	33,195	100
5	7,962	17	20	8,359	17	35	5,155	36.2	50	26,960	100
6	8,025	8.6	21	5,991	4.3	36	6,681	100	51	25,111	89
7	4,652	31.5	22	5,472	6.8	37	16,478	71.9	52	27,014	94.2
8	4,103	7.4	23	7,420	6.7	38	19,128	80.5	53	21,053	86.8
9	8,128	16.4	24	10,060	8.8	39	21,219	91.5	54	16,993	100
10	11,793	4	25	5,984	6.3	40	22,373	97.4	55	15,713	77
11	4,893	5.6	26	6,091	5.7	41	20,211	95	56	8,681	71.3
12	3,442	8.2	27	6,145	6.7	42	25,199	85.8	57	1,330	67.1
13	5,205	7	28	3,344	5.7	43	30,625	92			
14	9,163	17.8	29	4,461	9	44	25,398	82.7			
15	6,146	8.7	30	2,833	5.6	45	25,733	88.5			

##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9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티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 자동이체 신규신청 또는 기간연장을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어플을 이용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충성대 어플 이용 자동이체시 매월 수수료 발생)

※ 기부자 정보 수정 희망시에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